

●
전기 · 전자분야 글로벌 스탠더드 리더들이 서울로 모인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총회 서울 개최-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표준화관리이사회 (SMB) 총회를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 '09.2월 현재 정회원 55개국, 준회원 16개국/우리나라는 '63년에 가입

* 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표준화관리이사회)

○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 표준화 기구로 ISO와 함께 국제표준화 양대기구로 자리잡고 있으며, SMB는 IEC내의 모든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다.

□ 금번 총회에선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15개국 대표 40여명이 참석하여 IEC의 국제표준화 정책 등을 검토·승인하고 산하 기술위원회의 프로젝트 관리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 IEC표준정책에서 IEC표준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장적합성 기준 개발과 산업계의 표준화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 신기술분야에서 '초고압(Ultra High Voltage) 전락그룹'과 '친환경 전력시스템(Smart Grid) 전락그룹' 신설이후, 전문가들이 동 전락그룹에 참여하여 해당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계획

* '08년 SMB총회에서 신기술 분야에서 IEC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초고압 전락그룹과 친환경전력시스템 전락그룹 신설 결의

□ 한편, 총회기간 동안 LG전자는 각국의 대표단을 평택공장으로 초청하여 표준화 활동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된 제조공정을 보여 주고, LS산전의 이정준 박사는 한국이 제안하여 국제 표준으로 채택된 산업용 통신규약(protocol)인 'RAPIEnet'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전기·전자·통신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다.

* RAPIEnet (Real-time Automation Protocols for Industrial Ethernet)

: 산업용 이더넷을 위한 실시간 자동 프로토콜

□ 기술표준원은 금번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IEC 기술위원회 의장 및 간사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산업계, 자발적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나서다

- 청계광장서 제4차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2.17~21) 개막 -
- '탄소시장의 날', '탄소배출권 세미나' 등 다채로운 행사 열려 -

□ 지식경제부는 2.17~21일 열리는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를 통해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에 적극 나서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 교토의정서 발효('05.2.16)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된 기후변화협약대책 Week는 올해 4회째를 맞았다.

○ 특히 올해가 발리로드맵*에 따라 교토의정서 이행기간('08~'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마무리될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 제1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07.12.3)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 이행기간('08~'12)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협상 구상도로서, 이에 따르면 '13년 이후 국가의무부담 관련 논의를 '09년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마무리할 예정

● 한전-LS전선, 진도 ↔ 제주간 직류해저케이블사업 계약체결

직류해저케이블사업 케이블부문, 국내업체로는 최초로 LS전선과 계약체결

- 유사실적 업체 입찰허용으로 공정한 가격경쟁 유도로 사업비 대폭 절감
- Blue Ocean인 해저케이블 해외시장 개척 초석 마련
- 제주도 전력공급 안정성, 경제성 확보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 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2월 5일 전남 진도 ↔ 제주간 전력계통연계를 위한 해저케이블 사업 계약을 LS전선(대표 구자열)과 체결하였다.

○ 이번 입찰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시행한 후 입찰사와 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국제입찰방식으로서 지난 11. 19 입찰시 외국업체인 프랑스의 NEXANS, 일본의 JPS와 국내업체인 LS전선 3개사가 참여하였으며

○ 3개 입찰사에 대한 성능보증평가,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업체인 LS전선이 유일한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LS전선이 제출한 입찰서에 대한 가격평가와 우선협상 및 계약협상 과정을 통하여 직류 해저케이블 분야 최초로 국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지난 50여년간 국제시장에서 직류해저케이블은 유럽의 3개사(NEXANS, ABB, PRYSMIAN)에서 주도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금번 입찰에서 한전은 세계 최초로 입찰참여자 확대를 통한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입찰시 교류 초고압케이블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직류 초고압해저케이블 개발시험을 완료한 유사실적업체에게도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찰서 평가를 통하여 국내업체인 LS전선이 최종적으로 계약자로 선정됨으로써 당초 예산 3억 1,200만불(약 4,447억원) 대비 약 1,200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번 직류연계 사업은 2011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을 준공하게되면 지난 10여년간 제주도 전력 수요의 약 36%를 공급하여왔던 해남 ~ 제주간 직류연계설비의 용량부족을 해소하고 설비 고장시에도 안정적으로 제주도에 육지의 값싼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 향후 제주도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한계용량의 3배 이상을 건설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주도내 Green 에너지 공급 및 탄소배출감소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진도축으로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1차 직류연계사업인 해남 ~ 제주간에 설치되어있는 해저케이블 고장복구 등 정비경험을 쌓아왔던 국내업체인 LS전선이 금번 해저케이블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동해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또한,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과 제작사간 기술 및 정보공유를 통하여 향후 동북아 전력연계 및 해저케이블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 LS전선 측면에서는 금번 사업의 성공적 수행시 확보한 시공실적을 토대로 Blue Ocean이라 할 수 있는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을 주도한 유럽의 3개회사와 경쟁할 수 있게되어 지난 해 1조 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시장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한전, 공기업 최대규모 청년인턴 2,000여명 채용

- 저소득 소외계층 최우선 선발을 통해 사회적 책임 수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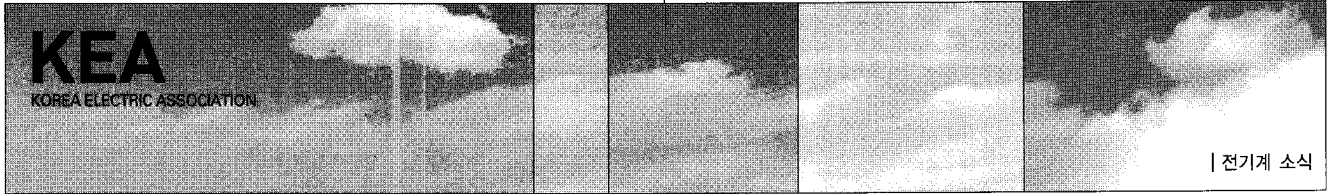
- 경기침체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최우선으로 선발
- 전력그룹 통합공고와 선발을 통해 최대인원을 채용하여 선발 효과 극대화
- 실질적인 실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사업소 중점 배치

□ 한국전력(사장 김쌍수)과 전력그룹사는 경기침체로 신규 취업의 감소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는 청년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기업 최대 규모인 1,97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하기로 결정

○ 314명은 이미 선발하여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금번에는 1,656명을 공개모집

□ 한국전력의 청년인턴 선발은 고통분담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김쌍수사장의 방침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생활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을 최우선으로 채용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부족인원 발생시 일반지원자로 채용



□ 한전과 전력그룹은 통합공고와 선발을 통해 선발인원을 최대화하여 청년인턴 채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청년인턴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

□ 또한, 선발된 청년인턴은 현장 사업소에 중점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실습과 실무경험을 쌓아 수료 후 구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